

##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 자 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 정 빈\*  
(남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나누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조사시점 당시 전국 26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탈성매매여성 전체로, 총 23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SCL-90-R의 불안과 우울이며,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은 평균 12.25점, 우울은 평균 18.4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각의 고위험군이 3.40%, 5.53%로 분석되어 일반 기준집단의 2.5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신건강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불안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양육자 만족도가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이었고, 우울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성매매기간 중 폭력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상기적 지원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의 제언을 하였다.

**주요용어:** 탈성매매여성, 불안, 우울, 정신건강, 외상

본 논문은 201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원 자료는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육구 조사'에서 수집된 것임을 밝힌다.

\*교신저자: 양정빈, 남서울대학교(yjb@nsu.ac.kr)

■ 투고일: 2013.4.30    ■ 수정일: 2013.8.1    ■ 게재확정일: 2013.9.4

## I. 서론

성매매(Prostitution)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현상이자 (Soh, 2004) 암묵적으로 통용된 범죄행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탈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김인숙, 2009; 김자영·김지혜, 2011).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미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국가 유지로 국가이미지 개선, 성매매피해자의 개념도입을 통한 인권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성매매 집결지의 2004년 35개 지역에서 2010년 28개 지역으로 축소, 성매매 알선업자 검거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룩했으나 기대한 만큼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혜영 외, 2012). 지난 3년간 성매매가능 업소는 2008년 121,163개소, 2009년 121,874개소, 2010년 123,52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김자영, 2012), 법과 단속을 피해 다양한 신·변종 업소의 등장과 연일 언론 보도에 등장한 성매매업소 여성의 자살 사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산 집결지 성매매 여성 289명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최희경과 정경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중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탈성매매 이후 시설에 입소하거나 자활을 준비하는 여성 중 상당수가 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성매매여성이 갖는 개인적인 특성과 성매매 환경에서 겪은 외상의 경험,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심각성에서 찾을 수 있다(전수진, 2005; 신혜영, 2006; 이지민, 2007; 안혜영 외, 2012).

이미 성매매의 폭력적 환경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겪는 각종 폭력은 신체적 폭행, 성폭력, 감시 및 감금, 본인 및 가족 위협, 인신매매, 선불금 및 사채 사용 등 그 종류 및 정도,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Bassel et al., 2001; Watts & Zimmerman, 2002; Farley, 2003; Herman, 2003; 김현선,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유재순, 2005; 신혜영, 2006; 이지민, 2007). 장기간 반복적인 폭력의 경험과 성매매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여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Begley & Young, 1987),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살충동 및 시도, 약물 의존 및 중독,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Flowers, 2001; Herman, 2003). 더불어 만성화된 외상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유발시키며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이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일평생 영향을 끼쳐 사회로의 진입을 막는 고착기제로 작용하며, 결국 탈성매매 이후에도 사회복지와 자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실제 진행된 국내외 연구물 또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물을 살펴보면,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Farley & Barkan, 1998; Farley, 2003; 김현선, 2002; 최현정, 2005; 이지민, 2007; 이지민·홍창의, 2008), 약물 중독(전수진, 2005), 자해나 자살(이옥정, 2000; 김소연, 2005) 등 한정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외상이나 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안혜영 외, 2012)가 있다. 가장 최근 보고된 탈성매매여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원자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에서 실시한 국내 시설 거주중인 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과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정신건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으로 연구주제가 한정되거나 치우쳐 있으며, 특히 탈성매매여성의 가장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인 불안과 우울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수준, 즉 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증상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의 불안과 우울 수준이 일반 규준집단(norm group)<sup>1)</sup>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겠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나누어 검증하겠다. 마지막으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특성과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와 자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규준집단(norm group)은 표준화검사 제작시 규준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전체 인구의 불안과 우울 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개념은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해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은 자아의 기능, 환경의 적응, 삶의 질 등 광범위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김윤정·최혜경, 2001, 김자영·김지혜, 2011). 미국 정신위원회는 정신건강을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닌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2005)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기초로 자신의 삶에서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이란 단순한 정신질환의 유무나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만족상태와 최상의 기능 발휘, 사회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의 폭력적인 특성과 그로 인한 정신건강 위협의 노출 가능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Rössler et al., 2010).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지닌 폭력적인 특성과 인권 침해적 요소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업주나 성구매자들로부터 감금, 폭행, 강간, 사회와의 단절 등 끊임 없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학대를 경험하며(Farley, 2003; 김현선, 2002; 유재순, 2005), 이러한 경험은 일회적·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도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 장기간·만성적으로 겪게 되는 폭력이므로, 그 후유증은 훨씬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시키는 것으로 논의되어져 왔다(Herman, 1992b; Pelcovitz et al., 1997; Ford, 1999; Courtois, 2004; van der Kolk et al., 2005). 또한 반복적, 만성적 외상의 경험은 보편적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우울 및 불안 등의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신적 마비상태나 공황상태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살시도, 삶에 대한 의욕 상실 등 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erman, 1992b; Farley & Baral, 1998; 전수진, 2005; 최현정, 2005; 이지민·홍창의, 2008; 안혜영 외, 2012). 일부 연구자들은 탈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언급하고 있는데(Terr, 1991; Herman, 1992b; Pelcovitz et al., 1997; Tsutsumi et al., 2008; 김현선, 2002; 전수진,

2005), PTSD는 전쟁, 사고, 폭행, 강간, 테러, 홍수, 지진 등 매우 긴급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이다(Herman, 1992a; 민성길, 1995). 이는 성매매 환경과 외상의 경험이 탈성매매여성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PTSD와 같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길들여진 탈성매매 여성은 본인 및 환경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어, 사회에 복귀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이지민, 2007; 이지민·홍창의, 2008; 김자영·김지혜, 2011). 이는 결국 성매매 환경을 벗어난 이후에도 사회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게 되며(Graham et al., 1994; Copeland et al., 2007; 안혜영 외, 2012), 실제 시설에 입소하거나 자활을 준비하는 여성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의 문제로 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수진, 2005; 신혜영, 2006; 이지민, 2007).

탈성매매 여성이 겪는 정신건강의 영역은 다양하나,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불안과 우울을 들 수 있다. 불안과 우울은 일단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나타나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노병일·손정환, 2011),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Bilsker, 2006). 또한 무기력, 우울증을 동반하여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매매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만성적인 외상을 경험한 탈성매매 여성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김자영·김지혜, 2011), 심각할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불안과 우울을 야기시키며, 탈성매매 이후 사회복귀와 자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탈성매매 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성매매의 폭력적 환경과 만성적인 외상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 우울, 공포, 스트레스, PTSD 등의 증상을 중심으로 탐색해 왔으며, 실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명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폭력피해 여성들의 우울과 불안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탈성매매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 등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개인적 특성과 세상에 태어

나 처음 맞는 가족의 환경인 가족적 특성, 성매매 기간 중 경험한 각종 폭력 등의 경험인 외상적 특성 이 세 가지 요인이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종교 등이 고려되는데, 연령의 경우 정신건강의 영향 요인으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Bhugra, 2004).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된 연구가 있는 반면(권구영·박근우, 200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있다(김자영·김지혜, 2011). 김소정(2008)은 폭력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학력이 높은 피해여성일수록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하여, Koenig(1995)는 종교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종교 활동을 통해 주관적 소속감과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가치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이 어려워 고립되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Rogenberg, 1965; 양미진 외, 2006).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자아존중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적 자원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김소정, 2008; 김순안·김승용, 2011). 탈성매매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유은주(2004)의 연구에 의하면, 참여자 대부분이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고, Begley & Young(1987)과 Herman(2003)의 연구 대상자들 역시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탈성매매여성들은 대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결국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족적 특성으로는 아동학대 경험, 양육자의 폭력 경험, 양육자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자마자 접하게 되는 첫 번째 환경으로,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과 정신건강에 필수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만일 가족 구성원 간 원만한 상호작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발달은 불가능하며, 우울, 불안, 열등감 등을 유발시

켜 사회 부적응,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석·안정자, 1996; 양미진 외, 2006). 특히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격성, 과잉행동, 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h & Barad, 1983; Davis & Carlson, 1987; Hershorn & Rosenbaum, 1995). 또한 Danielson et al.(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Finkelhor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성폭행 및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고, 누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경험은 심리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한 불안감과 우울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자기파괴적인 사고, 편집증세, 조현증, PTSD 등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연규월·우행원, 1996; 김정규·김중술, 2000; 권해수, 2003; Lindberg & Distad, 1985; Conte & Berliner, 1988; Mennen & Meadow, 1995; Boney-McCoy & Finkelhor, 1995; Fergusson et al., 1997).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동학대 경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아동학대 경험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ney-McCoy & Finkelhor, 1995).

한편, 탈성매매여성이 성매매라는 폭력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만성적 외상 역시 불안과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Herman, 1992b; Farley & Barkan, 1998; Farley, 2003; 김현선, 2002; 최현정, 2005; 전수진, 2005; 김미숙, 2007; 이지민·홍창의, 2008; 김자영·김지혜, 2011; 안혜영 외, 2012). 만성적 외상과 관련하여 약물복용을 들 수 있는데, 약물복용과 약물중독은 불안, 우울, 습관적인 절망감을 유발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남희·서정민, 2012). 성매매여성은 일반집단에 비해 약물 접근과 중독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 환경의 특성 상 피해여성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다가 결국 약물의존 상태에 이르거나 더 나아가 약물에 중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미혜,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Romans et al., 2001; El-Bassel et al., 2001). 탈성매매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해 조사한 전수진(2005)의 연구를 보면, 대상자의 86.70%가 약물복용의 경험이 있었으며, 약물복용의 사유는 성매매 생활의 주는 스트레

스 해소를 꾀고 있었다. 약물복용과 약물중독에 이르는 문제는 향후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응에 심각한 손상을 끼쳐 진정한 탈성매매를 막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변정애, 2004; 김자영·김지혜, 2011). Herman(2003)의 연구에 의하면, 탈성매매여성들은 억압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나 결국 실패하여 자해, 자살 등을 시도하며, 정신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 등의 증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매매 기간 동안 경험한 각종 외상적 특성이 주요한 정신건강 예측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기간 동안 겪은 각종 폭력 경험을 들 수 있는데, 김현선(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집결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76%의 응답자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80%의 응답자가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PTSD 진단기준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arley & Barkan(1998)은 9개 국가의 854명의 성매매여성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71%가 신체적 폭력을, 63%가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성적, 신체적 폭력 경험이 PTSD 및 부정적 정신건강과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경험은 우울에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으며(Worell & Remer, 2003; 김소정, 2008), 안혜영 외(2012)는 탈성매매 정신건강 예측요인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경험한 인권유린의 정도를 보았는데, 인권유린의 경험이 심각할수록 불안과 우울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외상의 경험 변인으로 성매매 유입시기와 성매매 기간을 들 수 있다. 이지민(2007)과 이지민과 홍창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된 연령이 빠를수록 외상의 심각성과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성매매 총 기간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3~5년에 정점으로 이루고, 6~10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다시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김소연(2005)과 안혜영 외(2012)의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연령과 종사한 기간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변인이 불안과 우울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지 다시 예측할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을, 가족적 특성으로는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를, 외상적 특성으로는 약물복용 경험과 성매매 유입시기, 성매매 기간, 성매매 기간 중 폭력경험 유무



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원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에서 수행한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의 내용으로, 전국에 위치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입소중인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이며,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최종 분석은 전국 26개 시설에 거주 중인 23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설문지 개발은 연구자의 문헌검토를 통한 설문지 초안 개발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2단계로 진행되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으며,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심리학과 교수 3인이 참여하였다.

#### 가. 종속변수: 불안과 우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정신건강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여 본인의 심리적인 행복과 만족스러운 적응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정신건강검사(Brief Sanity Inventory: BSI)를 김광일 외(197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 척도이다. 본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우울, 적대감, 공포불안, 강박증, 편집

증, 정신증인 9개의 증상차원과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조사 당일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음(0점), 약간 있음(1점), 웬만큼 있음(2점), 꽤 심함(3점), 아주 심함(4점)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한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증상의 심리적 특징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간주된다(김광일 외, 1984).

불안은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구성되며, 우울은 삶에 대한 관심 철회, 동기 결여, 활력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과 일치되는 증상들이 포함된다(김광일 외, 1984).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불안 Cronbach's  $\alpha = 0.926$ , 우울 Cronbach's  $\alpha = 0.939$ 이었다.

##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 3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탈성매매여성의 내적·심리적 요인을 뜻하는 것으로,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 연령, 학력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종교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0.852이었다.

가족적 특성은 탈성매매여성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1차적 환경인 가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양육자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에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아동학대 경험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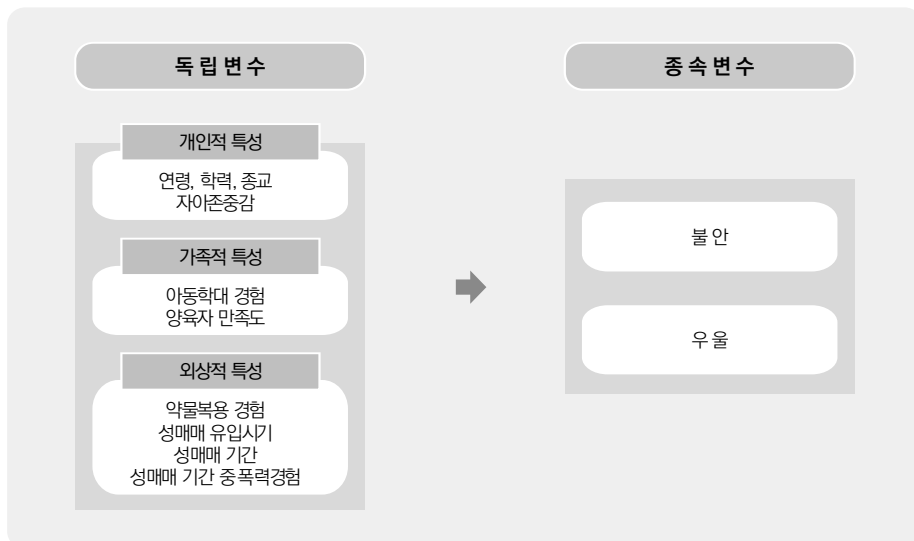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외상적 특성은 성매매 기간 중 겪게 되는 각종 외상 및 폭력적 경험을 의미하며, 약물복용 경험, 성매매 유입시기, 성매매 기간, 성매매 기간 중 겪은 폭력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약물은 술과 담배를 제외한 각성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흡입제 등의 복용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고, 성매매 기간 중 겪은 폭력 경험 역시 있다, 없다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성매매 유입시기와 성매매 노출기간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 3. 통계 분석 및 연구모형

통계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도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235명이 응답한 가운데 연령은 10대는 8명(3.4%), 20대는 137명(58.3%), 30대 이상은 90명(38.3%)이며, 평균 연령은 29.03 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66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는 35명(14.9%), 대졸 이하는 22명(9.4%), 초졸 이하는 12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36명(58.1%), 없는 응답자는 98명(41.9%)으로 종교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6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는 45명(19.2%), 천주교는 20명(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연령<br>(N=235) | 10대      | 8     | 3.4   |
|               | 20대      | 137   | 58.3  |
|               | 30대 이상   | 90    | 38.3  |
|               | 평균(표준편차) | 29.03 | 7.89  |
| 학력<br>(N=235) | 초졸 이하    | 12    | 5.1   |
|               | 중졸 이하    | 35    | 14.9  |
|               | 고졸 이하    | 166   | 70.6  |
|               | 대졸 이하    | 22    | 9.4   |
| 종교<br>(N=234) | 무교       | 98    | 41.9  |
|               | 불교       | 45    | 19.2  |
|               | 천주교      | 20    | 8.5   |
|               | 기독교      | 65    | 27.8  |
|               | 기타       | 6     | 2.6   |

탈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최소 1.40점에서 최대 4.90점까지 분포를 보였다.

표 2. 탈성매매여성의 자아존중감

| 구 분   | 빈도  | 최소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아존중감 | 235 | 1.40 | 4.90 | 3.02 | 0.60 |

## 2. 탈성매매여성의 가족적 · 외상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은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4명(58.8%)으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English, 1998; 한인영 외, 2008)에서 입증되었듯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며,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없을 경우 후유증을 갖게 하므로,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0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상적 특성을 보면, 약물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0명(49.8%)으로 과반수가 해당되었다. 선행연구로 제시한 전수진(2005)의 결과인 86.70%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본 조사결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의 범위에 술과 담배를 포함시키는데 따른 차이로 볼 수 있겠다. 성매매 유입시기는 평균 20.05세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전인 청소년기에 성매매로 유입된 응답자가 113명(51.8%)로 나타났다. 성매매 노출기간은 평균 66.20개월(약 5년 5개월)이었으며, 성매매 기간 중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178명(80.5%)으로 조사되어 탈성매매여성의 인권 유린 정도가 심각함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3. 탈성매매여성의 가족적 · 외상적 특성

| 변수        |                    | 구 분      | 빈도(명) | 비율(%) |
|-----------|--------------------|----------|-------|-------|
| 가족적<br>특성 | 아동학대 경험<br>(N=228) | 있음       | 134   | 58.8  |
|           |                    | 없음       | 94    | 41.2  |
|           | 양육자 만족도<br>(N=235) | 만족       | 83    | 35.3  |
|           |                    | 보통       | 71    | 30.2  |
|           |                    | 불만족      | 81    | 34.5  |
|           |                    | 평균(표준편차) | 4.09  | 2.04  |

| 변수        |                          | 구 분      | 빈도(명) | 비율(%) |
|-----------|--------------------------|----------|-------|-------|
| 외상적<br>특성 | 약물복용 경험<br>(N=221)       | 있음       | 110   | 49.8  |
|           |                          | 없음       | 111   | 50.2  |
|           | 성매매 유입시기<br>(N=218)      | 16세 이하   | 34    | 15.6  |
|           |                          | 17~19세   | 79    | 36.2  |
|           |                          | 20~25세   | 82    | 37.6  |
|           |                          | 26세 이상   | 23    | 10.6  |
|           |                          | 평균(표준편차) | 20.05 | 4.92  |
|           | 성매매 기간<br>(N=200)        | 1년 이하    | 41    | 20.5  |
|           |                          | 2~4년     | 59    | 29.5  |
|           |                          | 5년 이상    | 100   | 50.0  |
|           |                          | 평균(표준편차) | 66.20 | 56.83 |
|           | 성매매 기간 중 폭력<br>경험(N=221) | 있음       | 178   | 80.5  |
|           |                          | 없음       | 43    | 19.5  |

### 3.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특성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의 상태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불안과 우울의 원점수와 T점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원점수의 경우 불안은 0점에서 40점까지 분포하며, 우울은 0점에서 48.00점까지 분포를 이룬다. 불안과 우울의 심각성은 표준점수의 한 종류인 T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하는데,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점에서 60점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30점에서 70점 사이에 95%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광일 외, 1984). 여러 선행연구(권석만 외, 2001; 박상규, 2006; 이철호 · 이민규,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8; 김자영 · 김지혜, 2011)를 통해 70점 이상은 임상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65점 이상 70점 미만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대체로 60점 미만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보면, 불안은 최소 0.00점에서 최대 40.00점까지 분포한 가운데 평균 12.2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의 고위험군은 기준점단의 2.50% 정도로 보고되는데(김자영 · 김지혜, 2011), 조사 결과 고위험군은

3.40%, 위험군은 7.66%로 기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평균 18.46점인 가운데 최소 0.00점에서 최대 45.00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70점 이상의 고위험군은 5.53%, 65점 이상의 위험군은 7.66%로 나타나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이 기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4.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특성

| 구 분 | 빈도  | 최소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65점 이상<br>(위험군) | 70점 이상<br>(고위험군) |
|-----|-----|------|-------|-------|-------|-----------------|------------------|
| 불안  | 235 | 0.00 | 40.00 | 12.25 | 8.92  | 18(7.66)        | 8(3.40)          |
| 우울  | 235 | 0.00 | 45.00 | 18.46 | 11.56 | 18(7.66)        | 13(5.53)         |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개인적·가족적·외상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실시하였다. 불안의 경우 개인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적 특성과 외상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평균 13.75점, 없는 응답자는 9.37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약물복용 경험 역시 각각 14.24점, 10.40점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성매매기간 중 폭력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평균 12.63점, 없는 응답자는 9.37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연령, 아동학대 경험, 약물복용 경험, 성매매기간 중 폭력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대 연령층의 우울이 평균 19.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평균 19.19점, 약물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64점, 성매매기간 중 폭력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44점으로 나타났다.

탈성매매여성의 아동학대 경험, 약물복용 경험, 성매매기간 중 폭력경험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릴 적 주양육자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할수록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Hugh & Barad, 1983; Davis & Carlson, 1987; Hershorn & Rosenbaum, 1995; Danielson et al., 2005; Finkelhor et al., 2005)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약물복용 경험과 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고 하겠다(원미혜,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Romans et al., 2001; El-Bassel et al., 2001).

표 5. 개인적·가족적·외상적 특성에 따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차이 검증

| 구분        | 빈도              | 불안         |       |       | 우울    |         |          |       |          |
|-----------|-----------------|------------|-------|-------|-------|---------|----------|-------|----------|
|           |                 | 평균         | 표준 편차 | t/F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 개인적<br>특성 | 연령              | 10대        | 8     | 10.00 | 8.45  | 1.422   | 12.25    | 12.76 | 2.435*   |
|           |                 | 20대        | 137   | 13.06 | 9.01  |         | 19.65    | 11.32 |          |
|           |                 | 30대<br>이상  | 90    | 11.25 | 8.77  |         | 17.21    | 11.63 |          |
|           | 학력              | 초졸<br>이하   | 12    | 12.33 | 7.66  | 0.251   | 20.60    | 11.75 | 0.542    |
|           |                 | 중졸<br>이하   | 35    | 12.08 | 9.55  |         | 17.46    | 12.65 |          |
|           |                 | 고졸<br>이하   | 166   | 2.07  | 9.01  |         | 18.21    | 11.40 |          |
|           |                 | 대졸<br>이하   | 22    | 13.82 | 8.15  |         | 20.78    | 11.14 |          |
|           | 종교유무            | 있음         | 136   | 12.47 | 9.23  | 0.337   | 18.66    | 11.48 | 0.206    |
|           |                 | 없음         | 98    | 12.07 | 8.46  |         | 18.35    | 11.67 |          |
|           | 가족적<br>특성       | 아동학대<br>경험 | 있음    | 134   | 13.75 | 8.75    | 3.889*** | 19.19 | 11.12    |
| 없음        |                 |            | 94    | 9.37  | 7.80  | 16.67   |          | 11.54 |          |
| 외상적<br>특성 | 약물복용<br>경험      | 있음         | 110   | 14.24 | 9.14  | 3.306** | 21.64    | 11.45 | 4.137*** |
|           |                 | 없음         | 111   | 10.40 | 8.10  |         | 15.45    | 10.80 |          |
|           | 성매매기간<br>중 폭력경험 | 있음         | 178   | 12.63 | 8.82  | 2.251*  | 19.44    | 11.27 | 3.149**  |
|           |                 | 없음         | 43    | 9.37  | 7.07  |         | 13.42    | 11.16 |          |

\*p<0.05 \*\*p<0.01 \*\*\*p<0.001

#### 4.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탈성매매여성의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이 포함되며, 가족적 특성은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외상적 특성은 약물복용 경험, 성매매 유입시기, 성매매 노출기간,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이



포함되었다. 회귀식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석팽창지수(VIF) 값이 최소 1.051에서 최대 2.87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 1]에서는 개인적 특성인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탈성매매여성의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ogenberg, 1965; 양미진 외, 2006; 김소정, 2008; 김순안·김승용, 2011). 본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19.4%로 나타났다.

[모델 2]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았는데, 자아존중감, 아동학대 경험, 양육자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양육자 만족도가 낮을수록 불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변수의 표준화된 계수( $\beta$ )값을 비교해 본 결과,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beta=-.418$ )이었으며, 아동학대 경험( $\beta=.262$ ), 양육자 만족도( $\beta=-.169$ )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전체 설명력은 25.5%로 모델 1에 비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이 탈성매매 여성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 아동학대 경험, 양육자 만족도, 약물복용 경험이 불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양육자 만족도가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탈성매매여성의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ershorn & Rosenbaum, 1995; Davis & Carlson, 1987; Hugh & Barad, 1983; Herman, 1992b; Farley & Barkan, 1998; Farley, 2003; 김현선, 2002; 최현정, 2005; 전수진, 2005; 김미숙, 2007; 이지민·홍창의, 2008, 김자영·김지혜, 2011; 안혜영 외, 2012).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특성의 자아존중감이( $\beta=-.399$ ) 가장 높게 나타나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불안을 잘 예측하는 변수는 가족적 특성인 아동학대 경험( $\beta=.254$ )과 양육자 만족도( $\beta=-.181$ ), 외상적 특성인 약물복용 경험( $\beta=.134$ )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29.8%로 가장 높았다.

표 6.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구분                  |                | 불안        |           |          |           |          |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 β         | t         | β        | t         | β        | t         |
| 개인적<br>특성           | 연령             | -.109     | -1.525    | -.111    | -1.604    | -.186    | -1.686    |
|                     | 학력             | .036      | .508      | .032     | .460      | .005     | .068      |
|                     | 종교             | .060      | .8593     | .038     | .555      | .054     | .803      |
|                     | 자아존중감          | -.422     | -6.011*** | -.418    | -6.051*** | -.399    | -5.822*** |
| 가족적<br>특성           | 아동학대 경험        |           |           | .262     | 3.602***  | .254     | 3.550**   |
|                     | 양육자 만족도        |           |           | -.169    | -2.306*   | -.181    | -2.464*   |
| 외상적<br>특성           | 약물복용 경험        |           |           |          |           | .134     | 2.029*    |
|                     | 성매매 유입시기       |           |           |          |           | .057     | .639      |
|                     | 성매매 기간         |           |           |          |           | .032     | .332      |
|                     |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 |           |           |          |           | .130     | 1.875     |
| 상수                  |                | 6.062***  |           | 5.041*** |           | 4.403*** |           |
| R <sup>2</sup>      |                | 0.194     |           | 0.255    |           | 0.298    |           |
| Adj. R <sup>2</sup> |                | 0.175     |           | 0.228    |           | 0.255    |           |
| R <sup>2</sup> 변화량  |                |           |           | 0.061    |           | 0.043    |           |
| F                   |                | 10.317*** |           | 9.682*** |           | 7.038*** |           |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탈성매매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1]은 개인적 특성인 연령, 학력, 종교,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Rogenberg(1965), 양미진 외(2006), 김소정(2008), 김순안과 김승용(2011)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4.0%로 높게 나타났다.

[모델 2]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았는데,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변수만 우울과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성매매여성의 가족적 특성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설명력은 34.5%로 모델 1에 비해 더 높았다.

[모델 3]은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외상적 특성이 탈성매매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 약물복용 경험,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을 가진 탈성매매여성일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anielson et al., 2005; Finkelhor et al., 2005).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 $\beta$ )값을 비교해 본 결과, 탈성매매여성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불안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beta=-.557$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 $\beta=.198$ ), 약물복용 경험( $\beta=.134$ )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4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 탈성매매여성의 우울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구분                  |                | 우울      |           |         |           |         |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 $\beta$ | t         | $\beta$ | t         | $\beta$ | t         |
| 개인적<br>특성           | 연령             | -.047   | -.724     | -.047   | -.725     | -.122   | -1.212    |
|                     | 학력             | .051    | .790      | .050    | .771      | .023    | .345      |
|                     | 종교             | .095    | 1.493     | .088    | 1.385     | .103    | 1.661     |
|                     | 자아존중감          | -.585   | -9.208*** | -.583   | -9.001*** | -.557   | -8.915*** |
| 가족적<br>특성           | 아동학대 경험        |         |           | .073    | 1.077     | .061    | .940      |
|                     | 양육자 만족도        |         |           | .044    | .636      | .054    | .812      |
| 외상적<br>특성           | 약물복용 경험        |         |           |         |           | .134    | 2.117*    |
|                     | 성매매 유입시기       |         |           |         |           | .033    | .406      |
|                     | 성매매 기간         |         |           |         |           | .042    | .468      |
|                     | 성매매 기간 중 폭력 경험 |         |           |         |           | .198    | 3.139**   |
| 상수                  |                |         | 7.993***  |         | 7.386***  |         | 6.760***  |
| R <sup>2</sup>      |                |         | 0.340     |         | 0.345     |         | 0.416     |
| Adj. R <sup>2</sup> |                |         | 0.325     |         | 0.322     |         | 0.380     |
| R <sup>2</sup> 변화량  |                |         |           |         | 0.005     |         | 0.070     |
| F                   |                |         | 22.197*** |         | 14.934*** |         | 11.801*** |

\*p<0.05 \*\*p<0.01 \*\*\*p<0.001

지금까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불안은 개인적 특성의 자아존중감, 가족적 특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 외상적 특성의 약물복용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은 개인적 특성의 자아존중감과 외상적 특성의 약물복용

경험과 성매매 기간 중 폭력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은 모두 자아존중감의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불안은 가족적 특성이, 우울은 성매매 기간 중 겪게 된 외상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탈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불안과 우울 수준을 알아보고,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불안은 평균 12.25점, 우울은 평균 18.46점이었으며, 70점 이상의 고위험군은 불안은 3.40%, 우울은 5.53%로 기준 집단인 2.50%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이 취약함을 증명하는 실증적 결과물로, 탈성매매여성 불안과 우울의 심각성을 제기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적 대안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의 자아존중감과 외상적 특성의 약물복용 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불안과 우울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변수간 영향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미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egley & Young(1987), Herman(2003), 유은주(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탈성매매여성들이 겪는 성매매 환경에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매겨지는 낙인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탈성매매여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되어 지속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자포자기함으로써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킨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불안은 가족적 특성인 아동학대 경험과 양육자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우울은 외상

적 특성인 성매매 기간 중 폭력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적 환경인 가족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경우 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한인영 외, 2008)를 통해,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고,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일수록 긴장과 초조, 두려움 등 불안을 더 느끼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우울은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동기와 활력이 상실되어 절망감에 빠지거나 자살, 자해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성매매 기간 중 폭력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우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은 폭력피해의 전형적인 증상(김자영 · 김지혜, 2011)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켜 정신적 마비상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드러나(Herman, 1992b; Farely & Baral, 1998; 최현정, 2005; 이지민 · 홍창의, 2008) 심각할 경우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자살을 일으키는 원인(노병일 · 손정환, 2011)이 됨을 언급되었다. 따라서 폭력피해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우울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증상기적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매매라는 특수한 폭력적 상황과 이에 적응하고자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물에서도 보면, 각종 폭력에 노출된 탈성매매여성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약물, 자살, 자해 등 행동적인 문제를 유발시켜, 탈성매매 이후에도 사회복지를 막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활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탈성매매 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성매매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맞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전국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외부기관과의 연계나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영 · 김지혜,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불안과 우울의 심각성을 가진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먼저,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지역사회 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탈성매매여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인 종사자의 개별 역량과 태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선 끊임없는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탈성매매여성 쉼터 종사자가 겪는 소진, 대리외상, 그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종사자 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상화시킬 수 있는 슈퍼비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이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점을 유추함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가족적 특성의 아동학대, 외상적 특성의 약물복용, 성매매 기간 중 폭력 등의 주요한 변수들에 대해 경험 유무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갖을 수밖에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초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 이외의 다른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물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단면적인 연구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확보할 수 없어 정교한 인과관계를 설명, 예측할 수 없었다는 데 근본적인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이란 제한적인 연구

영역에, 전국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다양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탈성매매여성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선행연구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김자영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복지, 사회복지행정, 시설평가 등이다.

(E-mail: ja-young0101@hanmail.net)

양정빈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MSW,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현재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장애인 가족 및 노인 가족 등이다.

(E-mail: yjb@nsu.ac.kr)

## 참고문헌

- 권규영, 박근우(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pp.187-219.
- 권석만, 김선영, 이주실, 고운영(2001). 한국 남성 HIV 감염자의 정신건강 상태 및 관련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pp.219-228.
- 권해수(2003). 성학대피해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교육학과, 홍익대학교, 서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양대정신건강연구소.
- 김남희, 서정민(2012). 마약류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중의존과 이중진단 위험군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pp.175-204.
- 김미숙(2007). 집결지내 여성과 탈업소 여성의 탈성매매 요인에 관한 연구: 10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전북대학교, 전북.
- 김소연(2005). 성매매 현장에서의 경험이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소정(2008).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29-334.
- 김순안, 김승용(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pp.109-130.
- 김인숙(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 pp.134-157.
- 김윤정, 최혜경(2004). 가족부양이 장기요양보호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1(2), pp.99-112.
- 김자영(2012).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산업형 성매매의 현황과 특성. *여성과 인권*, 8, pp.40-59.
- 김자영, 김지혜(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김정규(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pp.331-345.



- 김정규, 김중술(2000). 아동기 성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pp.747-769.
- 김현선(2002). 성매매 폭력성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공회대학교,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8).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노병일, 손정환(20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63(1), pp.113-135.
- 박상규(2006).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pp.785-796.
- 박정은, 윤명숙, 서명선(1993). 유력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교육학과, 가톨릭대학교, 대구.
- 변정애(2004). 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경기.
- 신혜영(2006).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의 평가연구: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경남대학교, 경남.
- 안혜영, 오수성, 한규석(2012). 시설기관을 이용 중인 탈성매매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pp.271-288.
- 이옥석, 안정자(1996). 고등학교 남학생의 가족 환경지각과 정신건강. 전북대 논문집, 41, pp.215-227.
- 이옥정(2000). 막달레나, 막 달레나. 서울: 개마서원.
- 이지민(2007). 장기간 반복된 외상 피해자들의 증후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부산.
- 이지민, 홍창의(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pp.553-580.
- 이철호, 이민규(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pp.77-90.
- 유재순(2005).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성매매유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경원대학교, 경기.

- 유은주(2004).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서울.
- 연규월, 우행원(1996). 소아 성학대와 성인기 정신증상.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 pp.53-59.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pp.63-76.
-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여성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전수진(2005). 탈성매매여성의 약물에 대한 지식·태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공회대학교, 서울.
- 최장원, 김희진(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pp.73-103.
- 최희경, 정경숙(2009).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pp.413-435.
- 최현정(2005). 만성적 외상에 대한 해리경험이 성매매 여성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서울: 여성부.
-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진숙(2008).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배경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2), pp.131-153.
- Alegria, M., Vera M, Freeman, D., Robles, R., Santos, M C., Rivera, C L. (1994). HIV infection, risk behavior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Puerto Rican sex workers. *Am J Public Health*, 84(12), pp.2000-2002.
- Begley, C., Young, L. (1987). Juvenile prostitution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6, pp.5-26.
- Bilsker, Dan (2006). Mental Health Care and the Workplac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2), pp.61-62.
- Boney-McCoy, S., Finkelhor, D. (1995). Prior Victimization: A Risk Factor for Child Sexual Abuse and for PTSD-related Symptomatology among Sexually Abused Youth. *Child Abuse & Neglect*, 19, pp.1401-1421.

- Bhugra, D. (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9, pp.243-258.
- Conte, J., Berliner, L. (1988). The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Empirical Finding. L. Walker, In *Handbook on Sexual Abuse of Childre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pp.72-93.
- Copeland, W. E., D., Keeler, G., Angold, A., Costello, E. J. (2007).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hood. *Arch Gen Psychiatry*, 64(5), pp.577-584.
- Courtois, C. (2004).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pp.412-425.
- Danielson C. K. De Arellano M.A., Kilpatrick D. G., Saunders B. E., Resnick H. S. (2005). Child Maltreatment in Depressed Adolescents: Difference in Symptomatology Based on History of Abuse. *Child Maltreatment*, 10(2), pp.37-48.
- Davis, L., Carlson, B. (1987). Observation of spouse abuse: What happens to the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pp.278-291.
-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rogatis, L. R. (1994).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Inc.
- El-Bassel, N., Schilling, R. F., Gilbert, L., Irwin, K., Faruque, S., Edlin, B. R. (2000). Sex trad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treet-based sample of low-income urban men.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32(3), pp.259-267.
- El-Bassel, N., Witte, S., Wada, T., Gilbert, L., Wallace, J. (2001). Correlates of Partner Violence Among Female Stress-Based Sex Worker: Substance Abuse, History of Childhood Abuse, and HIV Risks. *AIDS Patient care and STDs*, 15(1), pp.41-51.
- English, J.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 pp.39-53.

- Farley, M. (2003). Prostitution and invisibility of harm. *Woman and Therapy*, 26, pp.247-280.
- Farley, M., Baral, I. (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 Farley, M., Barkan, H. (1998). *Prostituti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 Farley, M., Cotton, A., Lynne, J., Zumbek, S., Spiwak, F., Reyes, M., Alvarez, D., Sezgin, U. (1998).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ine Countries: An Update on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rley. M.(Ed),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Binghamton, The Hawa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pp.33-74.
- Fergusson, D., Horwood, L., Lynskey, M. (1997). Childhood Sexual Abuse,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Re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21, pp.789-803.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Hamby, S. (2005).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y. *Child Maltreatment*, 10, pp.5-25.
- Ford, J, D. (1999). Disorders of Extreme Stress Following War-Zone Military Trauma: Associated Feat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Comorbid but Distinct Syndr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1), pp.3-12.
- Graham, D., Rawlings, E., Rigsby, R. (1994). *Loving to Survive: Sexual terror, men's violence and women's l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 Herman, J. (1992a).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pp.377-391.
- Herman, J. (1992b).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to political terror*. NJ: Basic Books.
- Herman, J. (2003). *Introduction: Hidden in plain sight: Clinical observations on prostitution*. In Farley. M. (Ed.),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Binghamton: The Hawa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pp.1-13.

- Horowitz, M. J. (1986). *Stress Response Syndromes*. 2nd ed, New York: Jason Aronson.
- Hershorn M, Rosenbaum, A. (1985). Childeren of marital violence: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a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2), pp.260-266.
- Hughes, H. M., Barad S. J. (1983).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in battered women's shelte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1), pp.77-90.
- Koenig, Harold G. (1997). *Is Religion Good for Your Health?: The Effects of Relig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Inc.
- Lindberg, F., Distad, L. (1985). Survival Responses to Incest: Adolescents in Crisis. *Child Abuse & Neglect*, 9. pp.521-526.
- Mennen, F., Meadow, D. (1995). The Relationship of Abuse Characteristics to Symptoms in Sexually Abuse Gir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pp.259-274.
- Pelcovitz, D., van der Kolk, B.A., Roth. S., Mandel. F., Kaplan. S., Resick. P.,(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 of extreme stress(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pp.3-16.
- Romans, S, E., Poter, K., Martin, J., Herbison, P. (2001).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Female Sex Worker: A Comparative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pp.75-80.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össler, W., Koch, U., Lauber, C., Hass, A.-K., Altwegg, M., Ajdacic-Gross, V., andolt, K. (2010). The mental health of female sex work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2(2), pp.143-152.
- Silbert, M. H., Pines, A. M. (1982). Victimization of Street Prostitutes.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7, pp.122-133.
- Soh, C. (2004). Women's sexual labor and state in Korean history. *Indiana University Press*, 15(4), pp.170-177.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pp.10-20.
- Tsutsumi, A., Izutsu, T., Poudyal, A. K., Kato, S., Marui, E. (2008). Mental health of female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 in Nepal. *Social Science & Medicine*, 66, pp.1841-1847.
- van der Kolk, B. A. (1988). The trauma spectrum: the interaction of biological and social events in the genesis of the trauma respon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 pp.273-290.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pp.389-399.
- Watts, C., Zimmerman, C. (2002). Violence against Women: Global Scope and Magnitude. *Lancet*, 359(9313), pp.1232-1237.
- Worell, J. Remer, P. (2003). *Feminist Perspective in Therapy*. John Wiley and Sons.

## Factors Affect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Women After the Exit of Prostitution

**Kim, Ja Young**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Yang, Jung Bin**

(Namseoul University)

---

This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familial and traumatic factors on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women in post-prostitution. 235 women were recruited through 26 community-based centers for sex-worker survivors. The SCL-90-R scale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or investigating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mean scores of anxiety and depression were 12.25 and 18.46, respectively. Most of all, a high-risk women for anxiety and depression consisted of 3.40% and 5.53% of the total. It indicates that women in the high-risk groups are more vulnerable in mental health problems than women in gener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ow self-esteem, experience of abuse in childhood, low satisfaction toward her caregiver, a history of drug abuse predicted higher scores on the anxiety measure. In addition, low self-esteem, a history of drug abuse, and experience of violence during prostitution predicted higher depression scor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developing strategies including clinical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women after the exit of prostitution, policy-makings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in general, and empowerment of service-providers for them.

---

**Keywords:** Women in Post-prostitution,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Trauma